

금융그룹감독제도
간담회

2019.6.11.(화) 14: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9. 6. 11.

금 용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대표이사님들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을
설명드린 것이 작년 1월이었습니다.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7월에는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시범 적용하였으며,
8월부터 금융그룹 현장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법제화를 위한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박선숙의원안('18.6월), 이학영의원안('18.11월)

지난 1년을 잠시나마 돌이켜보니,
금융그룹감독의 큰 틀은 마련한 것으로 생각되며,
함께 힘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 등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제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 그간 제도도입 노력 및 평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은 지난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재별을 겨냥한다는 오해와 중복규제·과다규제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이자,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보충적 감독제도로써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입니다.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IMF에서도 지난 2013년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한국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이에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의 보편성, 보충성 등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며, 지난 1년간 어렵사리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그룹들이 그룹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도 마련하는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업무절차 등 기본 골격은 구축하였습니다.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리스크 현황을 공유하는 등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그룹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리스크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작이 반인 만큼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꾸준히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그룹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

정부는 모범기준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모범기준을 통해서도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일 개최되는 금융위에서는 다가오는 7.1일 모범기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IMF는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금융그룹감독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기준의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IMF FSAP에 적극 대응하면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융그룹감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독대상은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중인 점을
감안해서 현행 7개 그룹*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이위험은 평가지표와 필요자본 가산방식을
보다 구체화해서 '20년부터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이 정비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4 금융그룹에 대한 당부말씀

안전 논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스크(Risk)’란 용어는 ‘선원들이 암초*가 근처에 있음을 조타수에 경고’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 암초나 절벽을 뜻하는 그리스인의 항해 용어였던 ‘리자(ριζα)’에서 유래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그룹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예상하고, 인지하고, 해소하는 일련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대에 상응하는
개선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동서증권('97), 대한종금('99), 대우증권('00), 대한생명('02), 동양증권('13) 등

오늘 간담회가 기탄 없는 논의를 통해
우리 금융그룹들이 리스크의 어원처럼
암초를 인지하고 순항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